

2021. 10. 07.

재난예방과

일일 언론보도 현황

순 번	제 목	언론사	총계
1	여주소방서, 소화기 이용 자체진화로 큰 피해 막아	미디어연합 여주신문	2건
2	(기고)뜨거워서 데인 상처 화상 응급처치로 대처해보자	팔당유역신문	1건

여주 점동면 공장 화재, 자체진화로 큰 피해 막아

✎ 임미숙 기자 | ⓒ 승인 2021.10.05 21:49

2일 공장 천막 위 화재 발견, 소화기 이용 신속 초기 진화



[마이TV=여주]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께 여주시 점동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초기 대처해 큰 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근무 중이던 작업자는 작업장 내 연기를 보고 주변을 확인하던 중 천막 위에서 불뚱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인근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실시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다.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이도현 현장대응단장은 “관계인의 초기 대처 및 소화기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며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량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할 있기 때문에 업체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소화기를 설치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화재경보기 비치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미숙 기자 mytv@mediayonhap.com

여주소방서, 소화기 이용 자체진화로 큰 불 막아

✎ 박관우 기자 | ⓒ 승인 2021.10.06 08:50



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지난 2일 16시 20분경 여주시 점동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초기 대처해 큰 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근무 중이던 작업자가 작업장 내 연기를 보고 주변을 확인하던 중 천막 위에서 불뚱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신속히 인근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실시했으며, 바로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



소방서에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도현 현장대응단장은 “관계인의 초기 대처 및 소화기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며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량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할 있기 때문에 업체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소화기를 설치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화재경보기 비치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관우 기자 yeoju5@hanmail.net

뜨거워서 데인 상처 화상 응급처치로 대처해보자

2021년 10월 06일 (수) 17:33:58

여주소방서 이영분 lsk5887@gg.go.kr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는 요즘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중 특히 화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사고 부상이다. 화상을 입게 되면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끝난 뒤에도 고통을 겪게 된다.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화상을 입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기에 화상에 대해 익히고 그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 여주소방서 이영분 119구급대장.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나뉜다. 표피는 혈관이 없는 상피세포를 말하며 진피는 모낭, 땀샘, 피지선이 존재하고 피하조직은 지방층과 근육이 존재한다.

피부는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화상은 그 정도에 따라 1~4도 화상으로 나뉜다.

1도 화상이란, 표피층이 저온의 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흉터가 남지 않고 1주일 내에 회복하는 화상을 말한다.

2도 화상이란, 표피, 진피층의 일부까지 손상되며 심한 통증과 수포를 동반하며,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3도 화상은 진피의 전층과 피하지방까지 손상되며 피부가 갈색 또는 흰색을 띠는 것을 말하며, 통증과 수포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4도 화상은 전기화상처럼 근육, 골막까지 침범한 화상을 말한다.

응급처치법을 알아본다면 우선,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손상된 피부는 가위로 잘라서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열과 피부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 후 흐르는 물에 15분~20분 정도 화상 부위를 식혀주어야 한다. 얼음찜질 등 과도한 냉각은 저체

온을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화상으로 생긴 수포는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서 소독 후 처치를 받아야 한다.

화상을 입은 피부는 매우 약해지고 민감해지기에 피부 탈색을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을 피해야 한다.

간혹 민간요법이라고 하면서 상처 부위를 식힌다고 소주 같은 것을 붓거나 치약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화상 부위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화상 연고만을 바르는 것도 옳지 않다.

화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처치법도 잘 숙지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응급 처치로 화상으로 인한 손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팔당유역신문(<http://www.hanaro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